휴먼케어 특성화대학 Suseong University Newspaper

수성대학보

26.Oct 2026
Vol. **341**



학교 소식

"수상 릴레이 터졌다"…
수성대 방사선과 '겹경사'

두봉골 STORY

너의 플레이 리스트를
들려줘

사설

학과에 필요한
AI 역량의 진단을

학교 소식

캠퍼스 뉴스



“수상 릴레이 터졌다”…수성대 방사선과 ‘겹경사’

방사선과가 대한방사선사협회 경북도회 학술대회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수상하며 학과의 연구 경쟁력을 확인했다.

‘2026년 대한방사선사협회 경북도회 제6차 학술대회’에서 방사선과 구성원들이 논문발표 각 부문에서 수상 성과를 거뒀다. 천혜리 교수의 지도 아래 참가한 재학생들은 의료영상 인공지능, 초음파 검사, 방사선 안전관리 등 전공 분야의 최신 연구를 발표하며 실무 역량을 높였다.

재학생 논문발표 부문에서는 이예준 학생이 ‘심장초음파에서 인공지능 기반 자동측정과 수동측정의 주요 지표 비교평가’ 연구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성은 학생은 ‘간 초음파 영상소견과 간 탄성도의 연관성 분석’을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해당 세션 좌장을 맡은 천혜리 교수는 발표 진행을 총괄하며 연구 성과 공유를 이끌었다.

회원 발표 부문에서는 졸업생 최익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과장이 ‘방사성물질 운반시 운반지수 합 적용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후배들에게 모범을 제시했다. 방사선과 천혜리 교수는 “향후 학술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영상·방사선 분야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대학연합 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메타버스크리에이터과 학생들이 대구지역 9개 대학이 참여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창의적인 기술창업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정민·이석현 학생으로 구성된 ‘Syncode(신코드)’ 팀이 1일 대구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열린 ‘2026 지역대학연합 대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특허청 하이패스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지역 9개 대학이 공동 참여해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로컬 및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대학 대표로 출범한 총 17개 팀이 본선에 올라 사업계획 발표(IR·PT)를 진행했으며, 창의성과 사업성, 기술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를 받았다.

수성대 대표팀인 ‘Syncode’는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아이디어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특허청 하이패스상(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대학창업지원협의회(DRIVE) 위원인 이지영 창업보육센터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창업 활성화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2026 지역대학연합 대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대학창업지원협의회(DRIVE)와 대구지역 9개 대학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대구광역시, 한국연구재단,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는 수성대를 비롯해 경북대, 계명대, 계명문화대, 대구보건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美 타코마 커뮤니티 컬리지와 국제교류 협약

수성대학교가 미국 워싱턴주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인 타코마 커뮤니티 컬리지(Tacoma Community College·TCC)와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수성대는 교내에서 TCC와 글로벌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선순 수성대 총장과 김건우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아이반 L. 해럴 2세(Ivan L. Harrell II) TCC 총장, 제임스 뉴먼 국제학생 프로그램 및 서비스 총괄 이사 등 양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 학생 상호 교류 및 수용 지원, 학업 성취 기록 제공 및 학사 연계, 교직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수성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재학생의 해외 연수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TCC와의 학술·문화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순 총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연수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반 L. 해럴 2세 TCC 총장은 "두 학교가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강점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글로벌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학술·문화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TCC 대표단은 수성대와의 교류협약과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참관 등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대표단은 대회 개막식을 참관하고 대구스타디움몰에 마련되는 수성대 K-컬처 체험존에서 K-뷰티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였다.



'STAR-AX 교원역량 강화 워크숍' 성료

우리 대학은 경주 라한호텔에서 대학 교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STAR-AX 교원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과 AI·디지털 도구를 교육과정에 융합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김선순 총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교육 혁신, 성인학습자 지원, AI 활용, 산학협력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특강 및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주요 강연은 김상섭 영남대 교수의 ‘학생의 마음을 여는 자율성 증진 전략: 학습자 주도성을 깨우는 내적 동기 설계’, 김서영 서울시립대 교수의 ‘성인학습자의 창업 전략: 취업을 넘어 창업으로’, 이대현 메타버스크리에이터과 학과장의 ‘데이터 보호 기반 AI, 학과 광고 전략’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이명화 학생상담센터장이 진행한 ‘ICAS 기반 진단검사 결과 분석 및 활용 심포지엄’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 방안이 논의했으며, 강성수 산학협력단장의 ‘대학위기 극복 전략: 국비 재정지원사업 트렌드와 학과의 대응’ 특강으로 대학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김선순 총장은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교수진의 Co-Blending 교육역량을 고도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 주도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앵커사업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우리 대학은 대구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직면한 문제를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6학년도 앵커 사업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 참여형 혁신 모델인 ‘리빙랩(Living Lab)’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산학협력 혁신 프로그램이다.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대구시의 지역사회 현안 및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했다.

심사를 통해 8개 팀을 선발해 약 한 달간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을 거쳐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인 뒤,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 발표심사는 팀별 10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고 심사위원단은 △문제 인식도 △아이디어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발표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팀에는 총 3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날 대회 결과 수성대 ‘수호성(대표 유송이)’팀이 ‘수성구 학원가 권역별 순환 공공버스 별빛버스’ 주제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경북대 ‘무브온(대표 주재훈)’팀이 ‘세대를 잇는 어르신 주도형 교류 프로젝트 ON상(溫床)’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 상금 70만원을 받았다. 이외 우수상 2팀 각 40만 원, 장려상 2팀이 각 25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사업을 주관하는 김영아 취업지원처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창의융합 역량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실증 및 사업화 연계를 다각도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 참여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사선과, 미국 초음파사 자격(ARDMS) 초음파물리(SPI) 시험 합격자 배출

방사선과가 미국 임상초음파 자격기관인 ARDMS(American Registry for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에서 시행하는 초음파물리(Sonography Principles & Instrumentation, SPI) 시험 합격자를 잇달아 배출했다.

방사선과는 2학년 전재혁 학생과 3학년 김성은 학생이 학과에서 운영한 초음파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SPI 시험을 준비해 최종 합격했다.

SPI 시험은 초음파의 물리적 원리와 장비 운용, 영상 형성 원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ARDMS가 시행하는 국제 초음파 자격 취득 과정의 핵심 시험이다.

SPI 시험과 함께 복부, 심장, 혈관 등 각 분야의 전문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분야의 ARDMS 자격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합격은 수성대 방사선과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초음파 특화교육의 성과가 재학생들의 자격 취득은 물론 취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4년에도 당시 재학생이었던 3명의 학생이 학기 중 SPI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졸업 후 필립스(Philips), GE 등 글로벌 초음파 관련 기업과 대학병원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학 중 습득한 초음파 이론과 실무역량, 국제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실제 관련 분야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다.

방사선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부터 국내 자격과 국가시험 준비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수준의 초음파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초음파 이론과 실습, SPI 시험 대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천혜리 방사선과 교수는 “2024년 SPI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졸업 후 글로벌 초음파 의료기기 기업과 대학병원 등 관련 분야에 취업한 데 이어 올해도 재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대 간호학과, '제20회 수성건강축제' 참여...지역주민 심뇌혈관 건강증진에 앞장

간호학과 교직동아리 연(緣)이 최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열린 ‘제20회 수성건강축제’에서 ‘수성이와 혈관지키기’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미경 간호학과장, 오은혜 학생 외 9명이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위한 보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VR을 활용한 심장 구조와 혈액순환에 대한 체험장 운영과 함께, 심근경색과 뇌경색 전조증상에 관한 보건교육도 진행하며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참가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박미경 간호학과장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지역주민과 나누며 건강 실천을 돕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간호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대구 9개 대학, 창업교육 확대 위해 뭉쳤다… 기술창업 10개 팀 지원

대구지역 9개 대학이 공동 창업 교과목을 개발하고 대학생·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창업팀 육성에 나선다.

수성대학교는 본관 이음마루에서 '2026년 하반기 제1회 대학창업지원협의회(DRIVE)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수성대를 비롯해 계명대, 경북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등 대구지역 9개 대학의 창업지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학들은 기존 '대구창업학'에 이은 공동 창업교과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계명대가 제안한 가칭 '대구창업실전'을 비롯해 각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형 창업 교과목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의 실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산업 기술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10개 팀, 40명가량을 선발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성을 검증하도록 지원한다.

참가팀은 국내형 6개 팀과 해외형 4개 팀 안팎으로 나눠 선발할 예정이다. 핵심기술과 사업화 계획, 팀 역량 등을 평가하며 해외형은 해외시장 적합도도 심사한다.

선발된 팀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방법론을 활용한 고객검증 교육을 비롯해 창업활동비와 MVP(최소요건제품) 제작, 전문가 멘토링, 시장검증 등을 지원받는다. 해외형 참가팀은 국내 유학생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검증도 진행한다.

이후 IR 발표와 성과공유회를 거쳐 후속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대학들은 대학창업지원협의회(DRIVE)를 통해 9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동 홍보하고 설명회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강성수 앵커사업단장은 "대학 간 창업교육 자원을 연계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성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팜 및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성대학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스마트팜 및 농업기술 관련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학별 앵커사업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및 농업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 관심 분야 연구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성수 산학협력단장, 김영생 스마트팜과 학과장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김옥일 기획운영본부장, 박선호 기획조정실장, 황의웅 선임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관련 및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 연구,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연계 및 운영, 성공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 장소 제공 및 제반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우수 성과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성수 단장은 "이번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업 거버넌스 구축은 우리 대학이 스마트팜 및 첨단 농업기술 분야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우수한 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농업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지원센터, '2026학년도 현장실습교육 수기 공모전' 개최

우리 대학 취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는 2026학년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현장실습교육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부딪히고 배운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참여 양식에 따라 ▲현장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활동 내용 및 적응 스토리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점 및 보람 ▲취업과의 연계 계획 또는 취업 성공을 위한 각오를 작성한 뒤 11월 20일(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수기는 네 가지 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11월 말 수상자가 선정된다.

시상 규모는 총 20명 내외이며, 수상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최대 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단, 접수 인원에 따라 시상 인원과 상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습 기간의 경험을 한 편의 글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만큼, 진로와 취업 목표를 구체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생들의 생생한 실습 이야기는 앞으로 현장실습을 준비할 후배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공모전 참여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현장실습지원센터(053-749-7072,7073)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 합니다

신고합니다
15기 홍보대사 인삿말



이재봉_사회복지자율학부

소소한 봉사, 즉흥적인 봉사, 남모르게 하는 봉사를 십수 년간 해 오면서, 더 배워서 행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봉사를 하고 싶어 수성대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수성대 15기 홍보대사로서 임명 기간과 상관없이 꾸준히 학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학교를 많이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진미_피부건강자율학부

안녕하세요, SSU 온라인 홍보대사 15기 박진미입니다. 우리 학교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SNS 영상이나 학교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수성대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홍보대사로서 책임감 가지고 항상 밝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도연_치위생과

안녕하세요, 수성대 15기 홍보대사 치위생과 김도연입니다. 대학 와서 뭔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영상 찍으면서 학교도 알릴 수 있다는 게 좋아서 홍보대사를 하게 됐어요. 치위생과 일상이나 캠퍼스 곳곳을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활동할 테니 많이 봐주세요!



하인영_간호학과

안녕하세요! 2026년 학교 온라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간호학과 하인영입니다. 학교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학교의 매력이 잘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소_방사선과

안녕하세요! 수성대학교 방사선학과 류미소입니다. 방사선학과의 알찬 정보와 수성대의 다양한 소식을 더 널리 공유하고 싶어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수성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최신 정보들을 부지런히 전해드릴테니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박서준_방사선과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보대사를 하게 된 방사선과 2학년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전에 홍보대사를 했던 김성은 선배님이 활동하는 걸 보고, 저도 수성대학교랑 방사선과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방사선과 소개뿐만 아니라 수성대학교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박소현_제과제빵커피과

안녕하세요, 수성대 15기 홍보대사 제과제빵커피과 박소현입니다. 원래 영상 찍고 SNS 하는 걸 좋아해서, 이걸로 학교를 알릴 수 있다는 게 재밌어 보여서 지원하게 됐어요. 앞으로 실습실에서 빵 굽고 커피 내리는 모습이나 학교생활 꿀팁 같은 걸 찍어서 올려볼 생각이에요. 수성대 재밌는 학교라는 말 나오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봉골 STORY

너의 플레이 리스트를 들려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_잔나비

구도연

가을이 오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곡 중 하나예요. 잔잔하게 시작되는 멜로디와 잔나비 특유의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선선한 가을날의 감성을 잘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노을이 지는 가을 저녁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을 때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멜로디가 부드럽게 이어져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나간 시간이나 소중했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산책할 때나 창밖으로 가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듣기에도 좋고, 늦은 오후에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듣기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가을 아침_아이유

이다은

가을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곡 중 하나예요. 잔잔한 기타와 아이유의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복잡한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예요.
특히 이 노래는 쓸쓸한 가을보다는 맑고 선선한 가을의 분위기를 담고 있어서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나 햇살 좋은 날 산책할 때 잘 어울려요.
가사가 특별히 자극적이지 않고 일상의 소소한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라서 듣고 있으면 평범한 하루도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듣기에도 좋고, 가을에 친구나 연인과 드라이브하면서 듣기에도 잘 어울리는노래입니다.



시간과 낙엽_악동뮤지션

김영은

〈시간과 낙엽〉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남아 있는 추억과 감정을 담은 노래예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지나간 시간과 계절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들으면 노래의 분위기가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잔잔한 멜로디와 부드러운 기타 소리도 이 노래의 큰 매력이고요.
특히 밤에 들으면 차분한 분위기가 더 잘 느껴져서, 선선한 날 돗자리를 깔고 누워 조용히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가을밤, 어떤 노래를 들을까 고민되신다면 〈시간과 낙엽〉을 추천합니다~



Shane Filan_Always Tomorrow

강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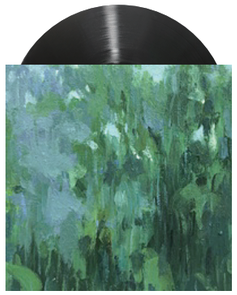
저의 가을 추천곡은 'Always Tomorrow'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고단했던 하루 끝에서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찾아오면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늘 제 플레이리스트 상단에 고정해 두는 소중한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 제목에서부터 전해지는 깊은 안도감과 감성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들을 때마다 마음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은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지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헛헛함과 행복감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피어나는 계절이지요.
마음 여유가 없을때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한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몽유 (Feat. 그냥노창)_빅나티

민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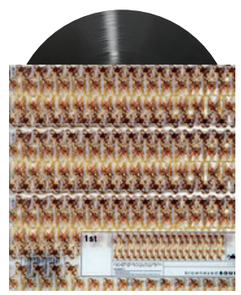
가을은 화려했던 여름이 지나간 자리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특유의 공허함을 남기는 계절 같습니다. 길가의 나뭇잎이 빛을 바래가듯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유독 쓸쓸하고 정적인 음악을 찾게 되니다. 이 계절의 쓸쓸한 감성과 가장 깊게 맞닿아 있는 곡으로 빅나티(BIG Naughty)의 '몽유'를 추천합니다.
'몽유'는 곡 전반을 지배하는 몽환적이고 차분한 선율, 그리고 빅나티 특유의 담담한 음색이 어우러져 깊은 정적을 만들어내는 노래입니다. 거창한 감정의 폭발 없이 낮게 읊조리듯 이어지는 흐름은 가을날 텅 빈 거리나 서늘한 밤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그대로 닮아있습니다.
특히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하는 가사의 아련한 정서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과 자연스럽게 오버랩 됩니다. 감정을 과장하여 포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쏟아내는 서늘한 멜로디는, 바쁜 학기 중 마음에 여백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깊은 울림과 정서적 공감을 전달한다고 생각됩니다.
혼자 걸어가는 캠퍼스의 길이나 쓸쓸함이 짙어지는 가을 밤, 이 노래가 선사하는 특유의 정적과 공허함에 조용히 몰입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숲_최유리

장엘

한 친구가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을 가을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봄처럼 따뜻하게 가까워졌다가도 어느 순간 조금씩 멀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꼭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듯,
관계도 때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요.
'숲' 을 들으며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멀어지는 관계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흘러가는 관계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내 곁에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루가 있으니까요.
이번 가을,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최유리의 '숲' 을 들으며 잠시 흘러가는 대로 두어보세요.



정말 사랑했을까_브라운아이즈소울

김우철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뜨거운 계절 '가을'의 또 다른 이름은 쓸쓸함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보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가수 '브라운 아이즈 소울'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애절하게 표현한 '정말 사랑했을까'이라는 곡은 가을에 카페를 가면 항상 먼저 재생하는 곡이자 쓸쓸한 가을을 최대한 온전히 느끼기 위해 재생하는 곡입니다.
왜 같이 있을 때는 모르고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지 이상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의 배려를 익숙함에 속아 점점 멀어지는 사이를 부정하며 떠나간 뒤 후회로 남겨진 쓸쓸한 모습만큼 안타까운 장면이 없더군요.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 만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언젠가 사람은 떠나가도 사랑했던 순간은 영원히 아름다울 테니까요.



잘 있나요 그대 (feat. 정지찬)_로이킴

권재혁

당신은 어느 계절에 살고 계신가요.
변하는 단풍들과 떨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지난 한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 빨라,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글쎄요 무덥던 여름에는 시원함이 간절하고 한없이 추운 겨울에는 더운날들이 그리우니까요. 딱 그 사이 이도저도 아니게 설레이듯 간지러운 것이 가을의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곱게 익은 저 단풍들을 즐길세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우리네의 젊은날일테지만, 문득 멈추어 넋 놓고 바라보아요 우리. 이 순간들을 그리워할 저 날들에 할말이라도 있게요. 애정하고 그리운 사람들에게 가을을 빌려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라며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서늘하고 앙상한 우리의 인생에 온기를 전해주는거일테니까요.

두봉골 STORY

사랑의 반대에서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에세이







고대하던 출국날에 다닿을 때 즈음. 서둘러,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들을 원래의 곳에 놓은 채 나의 꿈을 위한다는 이기적인 사유와 함께 피츠버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열 살 무렵부터 수없이 꿈꾸며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미국. 놓을 수 는 없다며 파리목숨처럼 이어가던 평생의 나의 영어공부들. 모두 꿈꾸던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었다.

왜 내가 그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아직 미국에 닿지 않았냐면 쉽고 짧게 이루기 싫었다. 내 가슴속의 따끈한 이 꿈을 쉽게 이루어 버리면 허무하여 더 이상의 목표는 없을 것 같았기에 아끼고 잘 닦으며 고이 간직했다. 사실 어떤 방법으로 이루나 내심 기대도 하였다. 내 나이 스물넷에 수성대 간호학과에 입학했고 학창시절 하라던 공부는 발산하는 무명의 호기심 덕에 공부를 하지않은 것이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많은 바람을 불었으며, 이리저리 치이며 후회와 자격지심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누구는 좋은 곳에 취업을 목표로 성적에 목을 매겠지만 나는 조금 달랐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이게 마지막이길 원했다.

뒤돌아보며 '그때 조금 더'라는 어리석은 말로 나의 20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또 이제 더 이상 방황하기 싫었으며 조금 더 쓸모있는 인간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맞다. 나는 이 힘으로 지난 공부를 해내었던 것 같다.

수업시간 허무하게 그 시간을 보내기에 아까웠고 무능력한 동료가 되기 싫었으며, 내가 마주하는 환자에게 최선과 최고를 제공하고 싶었다. 수업을 마치면 많지 않은 유혹들을 뿌리치며 앉아서 쓸쓸하게 했던 공부들은 모두 평범함을 쟁취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처절한 사투였다. 그렇게 지루한 하루들을 쌓고 쌓다 보니 나의 눈 앞에 글로벌현장학습이 아른거렸고 나는 힘껏 손을 뻗어 잡아냈다. 내가 묵묵히 쌓아온 지난 날들 덕에 나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애정하던 장소들, 내가 머물던 익숙한 그 시간들을 그 자리에 고이놓고 그대로 있어달라며 나는 아무 연고도 없는 꿈꾸던 이 드넓은 땅에서 나만의 도전을 강렬히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영원히 젊지 않을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모아둔 소중한 젊은날의 값들을 고이 챙겨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말이다.젊은날에 내가 하는 고생들은 내가 무너질 때 분명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간호사가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을 거쳐왔는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사람들에게 나의 형형색색 색깔들이 전해지길 바란다.

욕심 내지않고 모아온 따스한 것들을 그대로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사랑하던 곳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어떤 꿈들을 꾸게 될까.

그저 잘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미소지으며 나의 여정들이 기억되길 바란다.

늘 감사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탐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보련다.

훗날,아무도 가보지 않은 멋진길을 제시하는 졸업생이 되길 고대하며.

9/16/2026, La Loche University, Pittsburgh

교수칼럼

퇴근 후에도 꿈은 이어진다

신산업자율학부 웹툰웹소설전공이 올해도 지역민을 위한 비학위과정 두 개를 열었다. <퇴근 후, 나의 상상 - 웹소설 작가 N잡 도전> 과정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돼 마무리됐고, <글로컬 마케터 리더 양성과정>은 9월 29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 중이다.

두 과정 모두 지역민을 대상으로 25명씩을 모집했다. 웹소설 과정은 이름 그대로 웹소설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 창작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배우는 자리였고, 글로컬 마케터 과정은 AI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참여 열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말이 아닌 평일 저녁에 개설했음에도 웹소설 과정에 50명, 마케터 과정에 100명이 몰렸다. 각각 네 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고 25명이 선발됐다.

각 과정은 30시간으로 운영된다. 웹소설 과정 수강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것을 원고로 완성해 문피아에 직접 연재했다. 과정이 끝난 뒤에도 ㈜작가컴퍼니를 통해 계약과 론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뒤따랐다. 마케터 과정은 ㈜빅션과 함께 수강생이 직접 만든 IP를 실제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과물이 시장으로 나가는 구조라는 점이 두 과정의 공통된 강점이다.

수강생 대부분은 성인학습자였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강의실에 앉아 작가 데뷔와 AI 마케팅을 배우려는 사람들이었다. 인공지능이 창작과 마케팅의 문턱을 낮추면서, 작가가 되는 일도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더 이상 특정 직군의 전문 영역이 아니게 됐다. 이번 과정의 지원자 수가 그 변화를 보여준다. 결과물도 남았다. 웹소설 원고는 제본으로 제작됐고, AI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마실온'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가 두 번째 과정이었고, 내년에도 이어질 계획이다. 올해 기회를 놓친 지역민이라면 내년을 기다려볼 만하다. 웹툰웹소설전공은 내년에 스토리콘텐츠 전공으로 이름이 변모된다. 신산업자율학부 스토리콘텐츠 전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마련해 지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휴먼케어 영화

영화 <오디세이>
'욕망의 바다를 건너 사람으로 돌아오다.'



3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메로스'가 노래한 대서사시 '오디세이'가 세계적인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손에서 영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오디세이>는 아이맥스 70mm 필름에 담긴 거대한 바다와 괴물들은 압도적이지만, 극장을 나설 때 오래 남는 것은 스펙터클이 아니라 한 인간의 흔들리는 얼굴입니다.

<오디세이>는 영웅의 모험담이기 이전에 욕망과 반성, 그리고 인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맷 데이먼)'는 끊임없이 욕망에 이끌립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를 무너뜨린 승리의 영광, 적에게 되갚아 주고 싶은 분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로터스의 달콤함, '칼립소'의 섬에서 누리는 안락함까지. 특히 외눈박이 거인에게서 탈출하는 장면에서 그는 굳이 활을 쏘아 거인을 자극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부하들의 목숨으로 돌아옵니다. 순간의 분노와 자존심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방향을 잃은 욕망은 자신과 주변을 함께 삼킵니다.

그러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은 '오디세우스'를 단죄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영화의 진짜 여정은 바다 위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펼쳐집니다. '칼립소' 곁에서 과거를 되짚는 장면마다 '오디세우스'는 영웅의 가면을 벗고, 자신이 잃은 것과 자신이 빼앗은 것을 마주합니다. 그가 로터스를 먹으며 망각을 택하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잊고 싶다는 것은 곧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도망치는 대신 기억을 짊어진 채 집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반성이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끌어안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 일이라는 것을 영화는 '오디세우스'의 느린 귀향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성은 이타카에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과의 마지막 싸움에 홀로 나섭니다. 아들 '텔레마코스(톰 홀랜드)'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전쟁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은 긴 방황 끝에 그가 도달한 성숙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20년의 부재를 견디며 왕국을 지켜 온 '페넬로페(앤 해서웨이)'의 존재 역시 중요합니다. 그녀는 기다림이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능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묻는 '텔레마코스'의 고민 또한 한 사람의 선택이 가족과 다음 세대의 삶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일깨웁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전하는 휴머니즘은 완벽한 영웅을 찬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결 많고 실수투성이인 한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책임지며,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려 애쓰는 과정 자체를 존엄하게 바라봅니다.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세계에서도 끝내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며, 그 선택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신화를 빌려 마침내 비추는 것은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역시 저마다의 오디세이를 건너고 있다. 성취와 인정에 대한 욕망 속에서 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멈춰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이타카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fun Fun 341호 퍼즐놀이



❶①					❷②					③
									❸	
		④				❺⑥		⑧		
❹										
					❻					
		⑤							❾	
	❼			❾⑦						
❽						❿				
				⓫						

※ 퍼즐 정답자 중 무작위로 2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340호 상품증정기간: 2026. 11. 30.(월)까지 (본관 1층 입학홍보처 사무실, 당첨확인용 학생증 지참)
※ 341호 퍼즐제출기간: 2026. 12. 04.(금)까지 (본관 1층 입학홍보처 사무실로 제출)

학과: 학번: 이름:

가로

❶ : 태엽의 힘으로 회전하는 실린더나 디스크의 돌기(핀)가 금속판(빗살)을 튕겨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동 연주 악기
❷ : 식초와 기름에 유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프랑스식 반고체형 드레싱
❸ :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한 피에 고기, 채소, 두부 등의 소를 넣어 빚은 뒤 찌거나 삶거나 구워 먹는 음식
❹ : 변호사들이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 형태의 법률사무소
❺ : 자대(실무 부대)에 배치되기 전,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
❻ : 어떤 자음이 그 뒤나 앞에 오는 다른 자음에 영향을 받아,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음운 현상
❼ :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 인테리어 구조물 등 다양한 물건을 제작하고 시공하는 장인 또는 기술자
❽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눈에 띄도록 적어서 붙이거나 걸어 둔 글이나 물건
❾ : 어떤 사회, 국가, 문화, 산업, 예술 또는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번성하고 절정에 이르러 최고의 업적을 남긴 시기
❿ : 케첩이나 소스로 볶은 밥을 얇은 달걀 지단이나 오믈렛으로 감싸서 먹는 일본식 서양 요리
⓫ :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기술이나 재주(장기, 長技)를 뽐내며 겨루는 일

세로

① : 캔자스의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도로시가 숙부, 숙모와 살다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마법의 대륙 오즈에 떨어져 버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판타지성 모험 이야기이다.
② : 시골이나 특정한 입지에 여러 집이 모여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하는 거주지 집단
③ : 콩물을 끓인 후 간수를 넣어 응고시켰을 때, 압착하여 물기를 빼내기 전의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상태의 두부
④ :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
⑤ : 탄소(C), 수소(H), 산소(O) 원자로 구성된 유기 화합물로,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영양소
⑥ :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조선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옛 이름
⑦ : 물고기가 많이 잡혀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바다나 호수
⑧ :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고, 예방 및 재활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⑨ : 새로운 콘텐츠나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340호 퍼즐놀이 당첨자>

선○훈	치기공과	2610017
지○정	치기공과	2610027
김○웅	치기공과	2510009
송○정	방사선과	2409026
이○지	간호학과	2606136
장○연	간호학과	2606175
정○희	간호학과	2306170
장○	방사선과	2409042
허○무	방사선과	2409049

<340호 정답>

패	션	쇼			종	이	접	기		일
러					점				학	교
글		수				등	록	금		차
라		성				가		고		
이	목	구	비			교				
딩					순	환	열	차		
		분							하	
	머	리		선	풍	기			이	
		수		견					라	
자	전	거		지		레	몬	에	이	드
				명	절	음	식		트	

사설

학과에 필요한 AI 역량의 진단을

21세기는 흔히 4차산업혁명시대 혹은 인공지능시대(AI)라고 일컬어진다. 그 흐름은 DX(Digital Transformation)에서 AX(Artificial Transformation)로, 거기에서 다시 RX(Robort Transformation)로 이어진다. 즉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배경으로 AI가 터를 잡고, 이것이 실용화된 것이 로봇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종이 문서의 전산화,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화하는 디지털 전환(DX)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다. 그 이후로는 고객 문의 사항의 AI대응화, 생산계획의 AI분석화 등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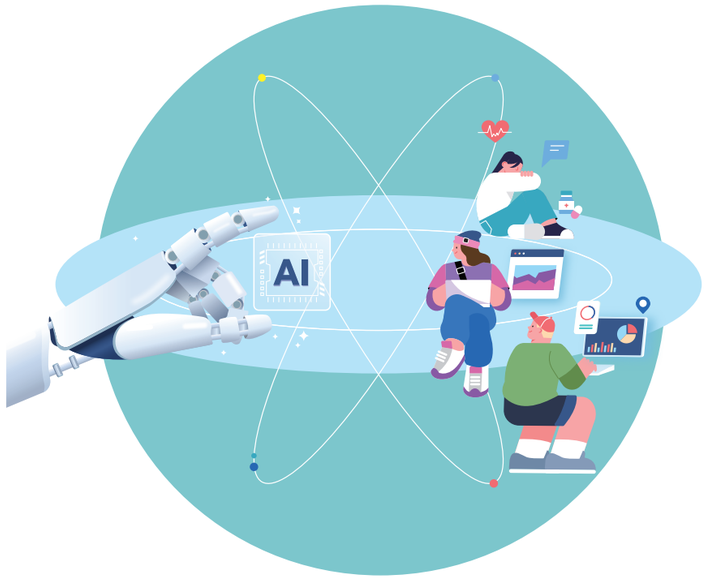
현재 AI의 역할과 기능이 워낙 다양하고 탁월하여 작금의 지식기반사회를 압도할 정도이다. 주요 기능을 보아도 생성형AI, 분석형AI, 대화형AI, 자율형AI 등 다기능적이다. 특히 생성형AI는 어떤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식의 내용을 제시하는 기존의 AI와는 달리 독특한 학습 기술까지 대입하면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창출형 지식의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지식 세계나 학문 분야는 AI가 창출해 내는 지식 혹은 백과사전형 지식 검색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AI를 지식 검색 혹은 창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론에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생성형AI를 통해 요구하는 창출 콘텐츠를 도출하기 위해 질문하는 테크닉부터 학습되어야 한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실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즉 AI를 실용화하려면 로봇을 만들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AI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AI는 로봇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낸다. AI는 일종의 '생각하는 두뇌'이고, 로봇은 '움직이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생산시설에서 어떤 일을 AI가 순서를 제시하면 로봇은 그것에 따라 부품을 이동하고 조립하게 된다.

AX는 DX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시대를 열었고, RX는 AI의 지식이 현실에서 실용하는 시대를 열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학에서 학과를 크게 DX구축 학과, AX활용 학과, RX생산 학과로 그 성격을 분류해 볼 수 있다. 물론 단일 성격의 학과도 있고, 복합적 성격의 학과도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따라 교수·학습하는 방법과 산학협력의 방향 그리고 소요능력도 결정된다고 하겠다. DX구축 학과는 디지털 환경조성을, 일반 학과는 AX콘텐츠 창출 및 활용을, 전자공학형 학과는 RX를 주로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둘 혹은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융합하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사회실무형이 다수인 우리 대학의 학과들은 인재양성에 필요한 역량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I문해력과 전공별 전략적 역량이 필요하다. 우선 AI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기술과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에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 맥락에서 AI를 사고 확장의 프레임으로 활용하며, 도출되는 결과적 지식을 비판하고 평가해서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다차원적 능력이 포함된다. 자기 전문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역량과 실용적 로봇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복합적 역량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수성인 국가고시 합격 응원 kit





수성이가 여러분 응원해요

